

생각하며  
감상하기

---

## 2018학년도 수능을 떠나보내며

매일 만나는 바깥 공기가 조금씩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여로의 마지막에 다다랐기 때문일게다. 길어진 밤과 세상을 뒤덮는 이 고요함을 무어라 형용해야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속에 수많은 시간의 흔적들이 들어있다는 것.

고개를 들어보니 밤이 더욱 짙다. 고개를 숙여보니 나는 아직도 제자리에 서있다.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스쳐갔던 수많은 밤들이 보인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갔던 것일까. 끝없이 달려왔던 시간들은 과연 어디로 향했던 것일까.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속 순수한 열망이 비추는 곳을 따라 걸음을 재촉했을 뿐인데, 회미해져가는 기억 속엔 왜 여전히 짙은 고민만이 가득한 것일까.

나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나'라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식이 시작되는 그날의 아침, 합격자들의 이름이 걸린 교문 앞에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자세로, 멈춰서버렸다는 사실을. 도덕교과서가 규정한 '모범'이라는 단어에 부합한 삶을 살았지만, 나는 '모범'이 아니었음을. 성적표에 적혀있는 숫자 외에는 그 누구도 나를 믿지도, 기억해주지도 않는 세계 속에 외로운 모습으로 존재해왔음을.

그 후로 흘러온 10년의 시간이 여기 있다. 끝없이 얘기하고 외치고 저항해왔던 시간들은 열등감과 패배감에 젖은 목소리로 둔갑한지 오래다. 그랬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밤은, 실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자리한 큰 어둠이라는 것을. 길을 걷다 멈춰 설 수밖에. 이 길에 들어선 이유를 망각하고 결국 열등감을 보상받고 싶은 치기어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진 채.

오늘 밤, 다시 고개를 숙였을 때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있다. 또 다시 고개를 들면 여전히 짙은 어둠이다. 그랬다. 나는 여전히 10년 전, 그날의 교문 앞에 서있는 것이다.

10대의 마지막 20대의 시작에 서있는 우리들에게 지나온 젊음은 어떠했으며 대학이란 어떤 공간이고, 지키고자 한 삶이란 무엇인가. 한없이 즐거운 10대 시절이어야 하며, 뜨거운 학문의 품속에서 또는 거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향해 거시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20대여야 함에도 우린 무엇을 향해 이리도 맹목적인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을 인정받고, 무엇을 짓밟기 위해서 이리도 감정적인 것일까. 수능이 지나고 나면 이 지독한 고민들은 정말 사라져 버릴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외치고 싶다. 그대의 가슴이 이끄는 삶을 살라고. 성적 따위는 그대의 가치를 규정짓지 않는다고. 슬한 비난에도 계속해서 이를 부단히 역설하는 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꼭 이루고자 하는 '낮선 소망' 때문임에 틀림없다.

타임머신을 탄다.

2009년 겨울의 졸업식,

교문 앞을 서성이는 하나의 안타까운 세계가 보인다.

달려가 그를 꼭 껴안아 주고 싶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기죽지 마라, 성적표에 적힌 숫자는 나를 끝내 굴복시키지 못했으리라.

열심히 살아 내줘서 고맙다.

너는 여전히 큰 별로서 나에게 다가온 하나의 뜨거운 젊음이다.

2017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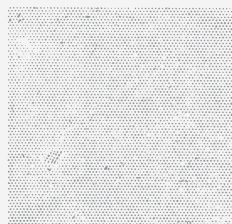
심찬욱



## 수능 문학의 본질은 감상하기입니다

단순한 감상하기가 아닌, 교과서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문에 제시된 문학작품을  
출제자의 의도대로 감상할 수 있는 지를 묻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날 생각하며 감상하기는 수능 문학의 본질을 제시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키워줄 최고의 교재입니다.



생각하며  
감상하기

# 1

## 운문문학의 이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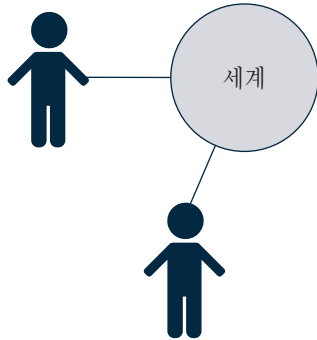
수능 문학의 본질은 감상하기입니다. 단순한 감상하기가 아닌, 교과서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문에 제시된 문학작품을 출제자의 의도대로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날 생각하며 감상하기는 수능 문학의 본질을 제시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키워줄 최고의 교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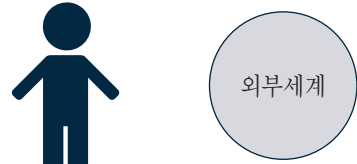
수능 문학의  
바탕으로  
지금부터

## 1. 서정과 자아 그리고 세계

(1)



(2)



### 기출 탐색

서정적 자아는 세계를 내면화한다. 이런 작용으로 서정시에서 자아는 상상적으로 세계와 하나가 된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기출 탐색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2017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0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나)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똥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칫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묵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A]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리다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다)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B]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답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어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해매고 다녔던 저 ㉢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김명인, 「그 나무」-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 0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②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 ④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 0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畫)’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 내고 있는 그림이다.

- ① 제1연에서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 ②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 ③ 제3연~제5연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 ④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겠군.
- ⑤ 제6연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 10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로, '한밤중', '십릿길'과 더불어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 ② ㉡: '끼리끼리'와 상관되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 ③ ㉢: '눅된 나무'가 피워 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눅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 ④ ㉣: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봄길'로,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절한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 ⑤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